

사찰 휴경지를 불교 수목원으로

특별기고



김재민

조계종 환경위원·사찰생태연구소 대표
temple_e@hanmail.net



수목원의 개념과 목적

근래 숲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주5일제 정착과 함께 국민들의 휴양문화가 정립되면서 크고 작은 식물원 또는 수목원들이 지자체나 개인 원력가에 의해 속속 세워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목원(arboretum)은 목본 식물(나무)을 주로 하여 전시하거나 양묘하는 곳을 가리킨다. 산림에 관한 자연학습장의 역할과 산림자료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꾸며진 곳이다. 식물원(botanical garden)은 초본(풀)이나 목본을 구별하지 않고 이들을 수집하고 연구하며 공개하



여주 신록사 숲



해남 무룡산 대웅시루



고령사 숲길

는 장소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구분없이 '수목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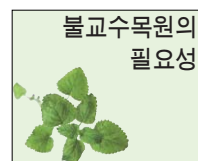
수목원은 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식물종의 다양성 확보와 식물유전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속시키고 전문가 및 일반인들에게 전시함으로써 식물 관련 지식을 보급하여 건전한 환경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시설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자연생태와 생태휴양문화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식물종의 자원화가 가속화되면서 수목원 설립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세계의 수목원 역사는 약 500년에 이르고 있다. 1759년에 설립되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영국의 왕립 큐식물원을 비롯해 현재 150개국에 총 1800개소의 수목원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일제 강점기 때인 1922년 광릉수목원이 처음 조성되었다. 해방 후(1967년) 우리 손으로 세운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을 비롯해 사설 수목원까지 합하면 현재 등록된 수목원은 모두 80여개에 이르고 있다. 등록이 안 된 수목원까지 합치면 그 숫자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여러 해 전에 정부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고, 올해 개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유원지에도 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수목원의 숫자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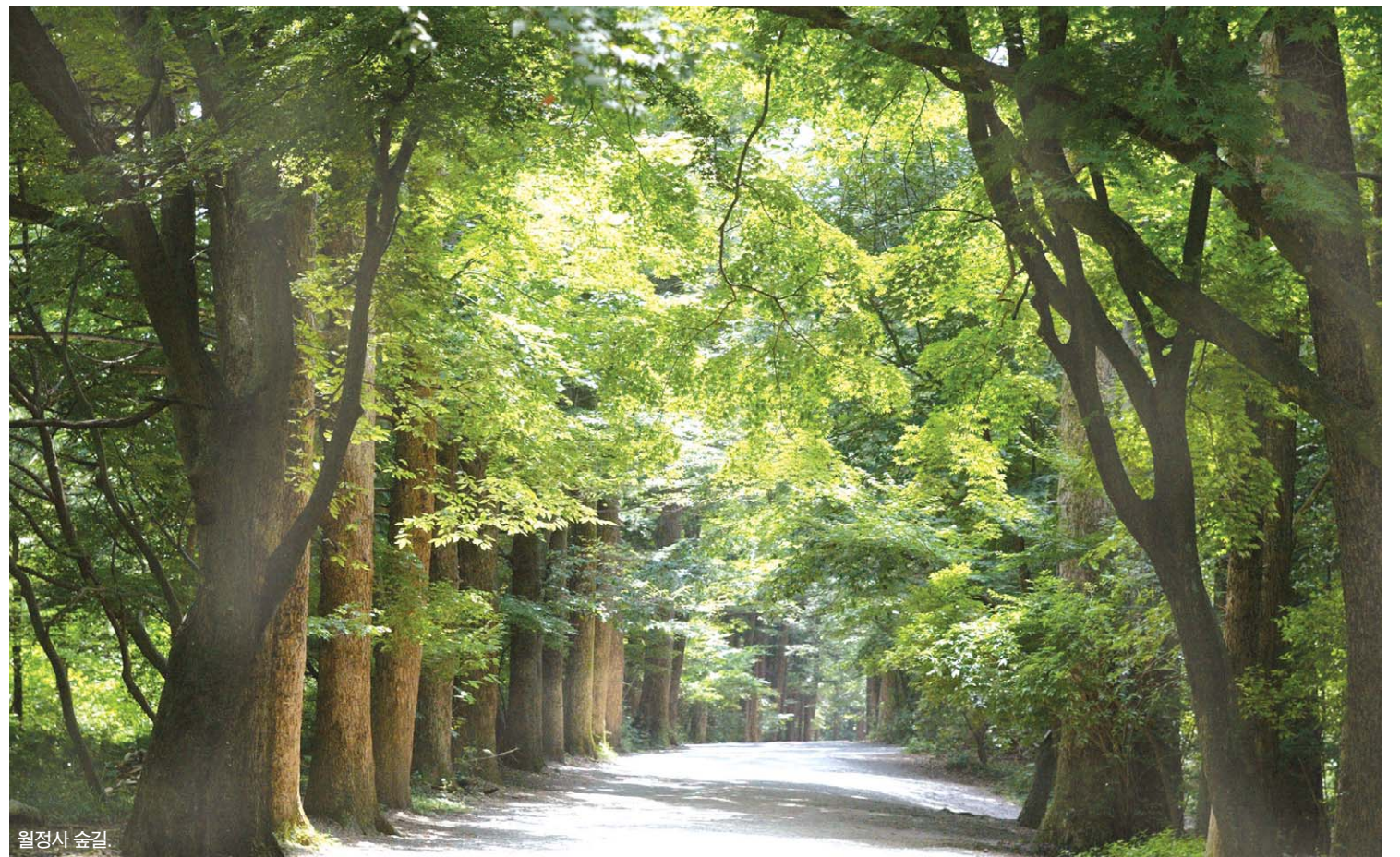
수목원의 주된 목적은 식물의 채집·재배, 분류연구, 전시관람, 휴양 공간 등 다양하다. 특히 최근에는 식물종의 경제적 가치와 높토 정착에 따른 휴양문화 확산에 힘입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목원이 속속 개장하고 있다. 특히 관광개발과 산림관리를 위해 전국의 지자체에서 관심을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수목장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가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다목적 수목원의 필요성에 비중이 더해지고 있다.

최근 수목원 설립의 뚜렷한 경향 가운데 하나가 주제(theme)에 따라 특성을 갖고 조성된 '테마 수목원'이다. '약용식물원' '허브식물원' '자생식물원' '고산수목원' '난대수목원' '원예수목원' 등이 그것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불교수목원도 불교와 사찰을 주제로 한 테마수목원이다.



불교수목원의 필요성

불교는 나무의 종교요, 숲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였다. 부처님은 숲에서 태어나, 숲에서 깨닫고, 숲에서 열반한 숲의 각자였다. 부처님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훼손하지 말라고 가르쳤으며,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기를 때때로 유시하였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숲속의 수행자였으며, 숲을 지켜온 수호자였다. 그들의 수행적인 사찰은 역사적으로 숲을 지키는 산파(山藪)



월정사 숲길

환경파괴·생태계 훼손으로 고유식물의 심각한 멸종위기 사찰 휴경지·사찰림 활용으로 경제적 효율성 제고 가능

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수목원이 설립되면 세계 유일의 불교 전문수목원이 될 것이다.

#신앙을 돈독히 해줄 불교수목원=불교에는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된 무우수(無憂樹), 성도와 관련된 보리수(菩提樹), 열반과 관계된 사라스(沙羅樹) 등 3종의 성수가 있다. 불상이 생기기 전 불자들은 500년 동안이나 깨달음의 나무인 보리수를 부처님 대하듯 경배하였으며, 그 흔적이 아직도 인도 각처에 남아 있다. 방대한 경전 곳곳에는 많은 식물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팔만대장경 등 경판도 나무로 만들어졌다. 경판 나무들을 심고 보존하는 것은 불자로서의 당연한 사명이다. 불교수목원을 설립하여 부처님과 관련된 경전이나 경전에 언급된 초본·목본을 심어 증식·보존·전시한다면 사부대중에게 경배심·신앙심을 불러일으켜 불교순례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멸종 위기 불교식물 보존=유엔환경개발(UNEP)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하루에 동식물 1300여종이 멸종한다고 한다. 1970~1995년 식물이 무려 380종이나 멸종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거나 경전 속 식물들도 지역개발과 지구온난화 등 멸종의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인도를 비롯한 불교국가들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인한 식물의 멸종위기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불교 관련 식물들을 지키고 보존해야할 지구적 사명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종다양성 극빈국으로 낙인 찍혀 있다. 귀화식물의 생태적 유희와 외래

종의 무분별한 반입으로 우리 고유식물들의 멸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태위기의 시대에 불교가 수목원을 설립하여 한반도 고유식물을 보존하고 위기의 종들을 지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불교수목원을 설립하여 국가 간의 21세기 '생물자원 전쟁'에서 국익에 보탬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사찰 식생조경에 큰 역할 담당=필자는 1988년부터 1000 사찰 순례를 시작하여 현재 800여개 사찰을 순례하고, 2002년부터 108사찰 생태탐방을 시작하여 90여개 사찰생태를 모니터링 하였다. 그러는 동안 가슴 아프게 느낀 점 하나는, 우리 전통사찰의 식생조경에 전통성과 일관성이 너무 없다는 점이었다. 삼보사찰이며, 5대 적멸보궁이며, 3대 기도처며, 25개 분사 사찰이며 생각 없이 심은 조경수들이 경내 외를 판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수목원을 설립하면 식생조경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불교 관련 식물들을 필요한 사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사찰소유 휴경지 효율적 활용=사찰림은 국유림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산림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찰소유 토지도 상당하다. 그러나 일손 부족으로 사찰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사찰 소유 토지의 휴경율(休耕率)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불교수목원을 설립해 고효율 친환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불교 이미지 재고=지리산 템·북한산·천성산·새만금 문제 등 환경 이슈마다 불교는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불교 환경운동이 매우 이기적이고 반성찰적이라고 비

판한다. 처음부터 사찰들은 숲을 훼손하고 들어왔으며, 수행환경 보전을 외치면서도 스스로 경쟁적인 대형불사로 끊임없이 숲을 훼손해왔다는 것이다. 비판을 성찰적으로 수용하고, 불교가 '숲을 살리고 생태를 보전하는 종교'라고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놓기 위해 불교수목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나무들의 재활용 역할=사찰불사 과정에서 수백 년 된 노거수를 합부로 베거나 숲을 뜯대 훼손하여 사찰의 질타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불교수목원을 설립하여 불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베어내게 될 나무들을 옮겨 살릴 수 있다면 불교수목원은 위기의 나무를 발생하는 재활용 역할을 할 것이다.

#휴양과 학습과 수련의 장=수목원의 휴양과 학습 기능은 포교의 좋은 발판이 된다. 일반 공원이 산책과 휴식을 위한 단순한 공간이라면 수목원은 그것에 다 웰빙과 자연학습이 추가된 다목적의 공간이다. 휴양공간을 갖춘 불교수목원은 국민들에게 산림욕 등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국민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불교수목원은 국민이 자연과 식물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학생들의 생태교육과 자연체험의 현장으로도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교수목원은 참선과 명상 등 정신수련의 장으로서도 대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갖춘 것이다.

#경제적 가치를 창출=수목원은 임장료, 목표 판매, 기술과 연구 용역 등을 수입원으로 한다. 초기투자액이 높고, 원금회수 기간이 다소 길지만 장기적으로 투자자치가 높은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불교수목원은 사찰휴경지나 사찰림을 활용함으로써 초기투자액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식물증식과 조경수 분양, 사찰 조경 사업 및 컨설팅, 수목장 부대사업, 다양한 불교휴양문화 콘텐츠 개발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다른 수목원에 비해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진단된다. 따라서 불교종단에서 수익 문화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영산불교 현지지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증과 나한이 삼재판란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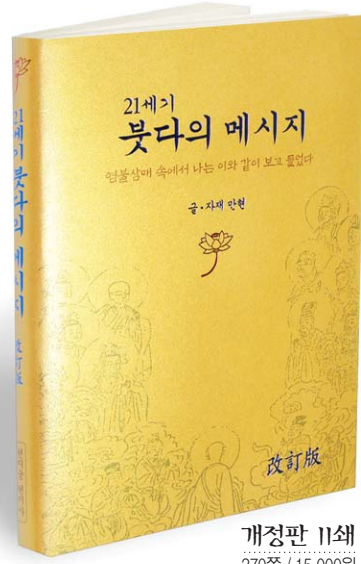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傳評”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절찬리 판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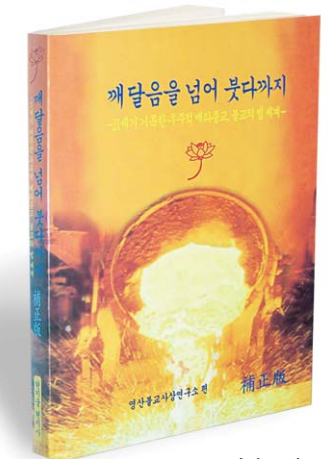
개정판 11쇄 이어 12쇄 발행!!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역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의 설명으로는, ○○○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 할까..... 나는 이제 현자사 크스나를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의 성서를 꼭 필독해보시기를 바란다. - 지방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